

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어휘 및 문법 정답표 [B형]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1	④	3	16	④	3
2	③	3	17	③	3
3	①	3	18	③	3
4	②	3	19	②	4
5	①	4	20	④	4
6	③	3	21	③	3
7	①	3	22	④	4
8	③	4	23	①	3
9	④	4	24	②	4
10	②	4	25	①	3
11	②	3	26	①	3
12	③	3	27	④	3
13	④	4	28	②	3
14	①	3	29	③	3
15	②	4	30	②	3

답지 빈도	답지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 수		7	8	8	7

정답 및 채점기준표 [B형]

출제위원	평가위원	출제위원장
	검토위원	관리대표

시험종류 : 제26회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영역 : 중급 표현(쓰기)

문항번호	정답 (객관식)	배점	문항번호	정답 (객관식)	배점	
31	③	4	36	④	4	
32	②	4	37	③	4	
33	①	4	38	②	4	
34	①	4	39	③	4	
35	②	4	40	④	4	
답지 빈도	답지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수	2	3	3	2	10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주관식)	배점
41	<p>7점: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겠어요? 등)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있다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있거든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얼마 전에 이사를 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p> <p>5점: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종결에 오류가 경우)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p> <p>※ 문장 연결이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1 ~ -2 ※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 -3 ~ -5 ※ 의미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류 -6 ~ -7</p>	7
42	<p>7점: 친구에게 약속 장소를 물어 보니까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다. 친구에게 약속 장소를 물어 봤더니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다.</p> <p>5점: 친구에게 약속 장소를 물어보고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다.</p>	7

	<p>※ 문장 연결이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1 ~ -2</p> <p>※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 -3 ~ -5</p> <p>※ 의미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류 -6 ~ -7</p>	
43	<p>8점: 색깔에 따라서</p> <p>※ 의미는 통하나 중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1 ~ -2</p> <p>※ 관련된 어휘를 사용했으나 문법적 오류가 심한 경우 -3 ~ -4</p> <p>※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 -5 ~ -6</p>	8
44	<p>8점: 관심이 있는지</p> <p>※ 의미는 통하나 중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1 ~ -2</p> <p>※ 관련된 어휘를 사용했으나 문법적 오류가 심한 경우 -3 ~ -4</p> <p>※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 -5 ~ -6</p>	8
45	<p>· 제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시 내용 당 -5</p> <p>· 글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 -4</p> <p>· 분량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1 ~ -5</p> <p>· 빈번한 문법, 어휘, 맞춤법 오류 -5 ~ -8</p> <p>· 글의 특성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문체를 사용했을 경우 -1 ~ -3</p> <p style="text-align: center;"><모범 답안 예시></p> <p>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은 아주 특별했다.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와 생각하면 그 여행은 어머니의 ‘추억 찾기 여행’이었다. 졸업한 후에 가족들과 서울로 이사를 와 그곳을 떠난 지 꽤 오래되셨다는 어머니는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많이 설레어하셨다. 어머니께서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사셨다던 동네에도 가고, 졸업한 초등학교에도 가 보았다. 걸어서 한 시간쯤 걸린다던 학교는 실제로 가 보니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꽤 먼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이렇게 짧았나?”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께서 웃으셨다. 학교로 가는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꽃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셔서 걸어가는 내내 신나고 재미있었다. 아마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께서도 그 길을 걸으면서 나처럼 행복해하셨을 것 같았다. 학교로 가는 중간에 우연히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무척 좋아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날 저녁은 그 친구 분 댁에 가서 먹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추억을 찾아 떠난 그 여행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다. 기회가 되면 다시 꼭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p>	30